

미국이 추구하는 전후 이라크 질서구축의 방향

□ 전후 질서구축 방향을 놓고 각축

- 전쟁 발발 직후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미국이 사후 UN을 통한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으며, 러시아 등도 후세인 이후 이라크 질서는 UN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한편, 전쟁의 중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블레어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 전후 이라크 질서구축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전쟁에 대한 논란과 엄청난 반전시위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으나 미국은 오래 전부터 후세인 이후의 질서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 등 다른 강대국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질서재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것임.
- 결국, 이번 전쟁의 이면에는 막대한 이라크 석유에 대한 이권이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처럼, 무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나 이를 반대하고 나선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사이에는 이권배분의 차이만큼 전쟁에 대한 입장차이도 커지게 되었음.
- 전쟁의 향배에 전세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후세인 체제의 종말은 시간문제일 뿐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전후질서 구축은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와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들과 UN은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적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후 새로운 체제 구축, 막대한 복구사업의 추진 등 수많은 과제

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후세인 이후의 체제

- 후세인 축출 후 미국은 일정 기간 군정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Tommy Franks 사령관과 John Abizaid 부사령관이 군정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또한, 직접적인 군정기간은 약 6개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미군 주둔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후세인 이후의 체제¹⁾ 안정에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은 反후세인 집단 중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인물을 선정하여 정권을 이양할 것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후세인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시아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라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권이 구성될지는 미지수임.
- 한편, 영국은 이번 전쟁의 정당성 확보와 새로운 체제구성의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UN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하며 자신의 주도 하에 초기질서 구축을 끝낸 뒤 UN의 참여공간을 허용할 것으로 보임.

□ 전후 복구사업 주도문제

- 지난 3월 21일 워싱턴포스트誌와의 회견에서 美원조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총재인 Andrew Natis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는 UN을 비롯하여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Natis는 EU와 많은 NGO들로부터 전후 복구사업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으며, 실제로 전쟁 시작 전부터 미국기관

1) 미국이 군정 이후 바로 이라크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기보다 일정기간 미국의 민간인사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과도정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들이 전후 복구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음.

- 따라서 초기 복구사업은 USAID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제기구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의 사업참여 기회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임.
- USAID는 '전후비전'(Vision for Post-conflict Iraq)으로 명명된 자신들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미국의 주요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과 9억 달러 규모의 도로, 교량, 발전소 보수 등 전후 복구사업 입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²⁾
- USAID가 작성한 입찰제안서에 자신의 임무를 "전후 이라크의 인프라, 공공설비 및 서비스시설 복구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이 미국주도로 진행될 것임을 명시하였음.
- 또한, 지난 3월 11일 일단의 미국건설업체들이 美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에 통상적인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미국기업들은 전후 USACE가 발주하게될 이라크 내의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음. 이라크에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는 USACE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USACE는 3월말까지 5건의 우발계약³⁾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복구비용 부담문제

- 지난 3월 25일 747억 달러의 전쟁비용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중 인도적 지원 및 복구비용은 고작 24억 달러가 할당되었음. 그밖에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소액의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은 UN 제재 하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원유식

2) USAID의 입찰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 하나인 Kellogg Brown & Root(KBR)은 Halliburton社 자회사인데, 딕 체니 부통령이 부시 행정부에 합류하기 직전인 2000년까지 동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경력으로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음.

3) 건별 금액은 최대 1억 달러로 예상되며, 사업내용과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임.

량 프로그램(Oil-for-Food Program)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결국, 전후 복구사업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은 미국 등 전쟁 당사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이라크가 가진 석유판매 수입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을 것임.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